

韓國紙鳶에 관한 研究

李 潭 周

- | | |
|-------------|----------------------|
| 一. 序 | 四. 紙鳶의 種類 |
| 二. 韓國紙鳶의 起源 | 五. 鳶의 科學的 構造와 絲, 얼래. |
| 三. 鳶날리기 風俗 | 六. 結 論 |

序

푸른 하늘에 꿈을 실어 띄우는 우리 나라 傳來의 民俗놀이 鳶날리기의 도구인 紙鳶은 오늘날 쇠퇴와 아울러 우리 周邊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무릇 民俗놀이의 大部分이 그러하듯 鳶날리기도 옛 庶民層의 愛護를 받던 娛樂으로서 生活의 哀歡을 담고 있다. 素朴하고 우직한 性品은 鳶의 모양에도 그대로 드러나 기교에 넘치는 粧飾이나 아름다움을 爲한 勢力이 엿보이지 않는다. 兩班이나 貴人中에서 꽃피운 生活文化의 燦爛하고 藝術的으로 昇華된 遺産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 紙鳶은 風을 利用하여 大氣中에 떠오를 수 있도록 바람과의 力學關係를 고려하여 만든 樂기는 우리가 높이 살 만하다. 材料가 좋고 娛樂器具로서 重要하지 않은 탓인지 오늘날 옛 鳶의 保存 및 研究할 資料, 文獻, 記錄의 빈곤으로 鳶에 對한 論文이 全無하여 앞으로 이 方面에 研究의 한 加擔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筆을 들며, 우리 나라를 中心으로 이웃 나라(日本, 中國, 말레이시아, 유럽) 等地에서도 鳥類形, 動物象形, 박스形, 모양의 鳶을 만들어 띄었다는 記錄이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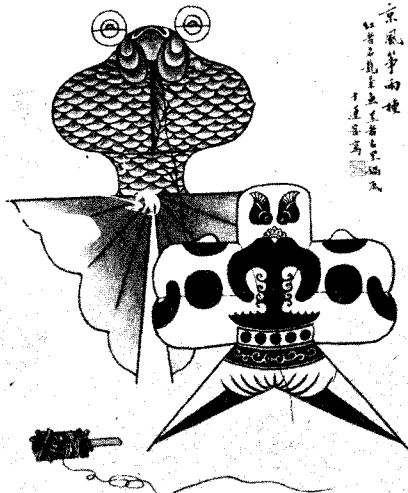
一. 韓國紙鳶의 起源

우리 나라 文獻中 紙鳶에 對한 記錄을 보면 「三國史記」 卷四一 列傳第一 金瘦信 上卷에 보면 「乃造偶人 抱火載於風鳶而飄之著上天然」²⁾이라 하여 이미 三國時代 紙鳶을 사용했다는 記錄이 있다.

* 1) the name given to several birds of prey, including the Common European — the head is greyish-white. Britannica p. 421

2) 三國史記 卷四一 列傳 第一

「十六年丁未是善德王末年眞德王元年也·大臣毗曇廉宗·謂女主不能善理·學兵欲廢之·王自內鄉之·毗曇等屯於明活城·王師營月城·攻守十日不解·內衣大星落於月城·毗曇等謂士卒曰·吾聞落星之下必有流血·此殆女主敗績之兆也·士卒呼吼聲振地·王聞之恐懼失次·庚信見王曰·吉凶無常·惟人所召·故紂以赤雀亡·魯以獲麟衰·高宗以雉雄興·鄭公以龍鬪昌·故知德勝於妖則星辰變異·不足畏也·請王勿憂·乃造偶人·抱火載於風鳶而飄之若上天然·翌日使人傳言於路曰·昨夜落星還上·使賊軍疑焉·又形白馬·祭於落星之地·祝曰·天道則陽剛而陰柔·人道則君尊而臣卑·苟或易之·即爲大亂·今毗曇等以臣而謀君·自下而犯上·此所謂亂臣賊子·人神所同疾·天地所在容·今天若無意於此而反見星怪於王城·此臣之所疑惑而不喻者也·惟天之威·從人之欲·善善惡惡·無作神羞·於是賀諸將卒奮擊之·毗曇等敗走·追斬之夷九族



〈中國의 魚類形鸞〉



〈中國의 鳥類形鸞〉

“新羅眞德王 即位元년에 大臣들이 王을 폐하러 內亂을 일으켰을 때 月城에 큰 별이 떨어져 王이 패망할 징조라 하여 王이 크게 두려워하자 金瘦信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鳶에 달아 이를 바람에 따라 띄우니 불덩이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는 어제밤에 떨어졌던 별이 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문을 내어 壯兵의 사기를 돋운다음 賊徒를 무찔렀다고 한다.

또 傳說에 依하면 高麗의 名將 崔瑩將軍이 耽羅를 정벌할 때 軍隊를 배에 싣고 耽羅에 이르자 섬의 四方이 절벽이라 上陸할 수가 없어 피를 낸 것이 사람을 태울 만한 鳶을 만들어 가지고 空中으로 軍事들을 上陸시켰다는 說도 있으며 三國時代에 戰爭이 있었을 때 自己便 陣地에서 自己便 陣地로 通信 연락의 한 方便으로 使用한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一部에서는 三國時代로 본 사람도 있다.

여기서 紙鳶에 關하여 外國(이웃 나라)의 紙鳶史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中國의 紙鳶(起原)에 關한 記錄

漢나라 高祖가 陳豨를 정벌할 때 韓信이 敵情偵察用으로 鳶을 만들어 使用하였다는 說이 있다.³⁾ 또 西漢의 劉邦과 楚의 項羽가 戰爭을 할 때 韓信이 기교를 부려 소가죽으로 큰 鳶을 만들어 그 밑에 바구니를 달고 피리 잘 부는 사람을 태워 이것을 띄워서 楚軍의 머리 위에서 望鄉曲을 부르게 하였다. 그 구슬픈 曲을 듣고 완강하던 項羽의 兵士들도 점차로 흠어지고 項羽가 항복하게 되었다고 한다.⁴⁾

宋나라 高承이 撰한 「事物紀原」⁵⁾에서 韓信이 紙鳶을 만들어 띄워 未央宮의 遠近을 測量하였다 하

* 3) 日語版 「風俗辭典」

4) 支那民俗誌 永尾龍造 p. 741

5) 事物紀原 (高承選)

「古今相傳·云是韓信所作·高祖之征陳豨也·信謀征中起·故作紙鳶放之·以量未央宮遠近·欲以穿地隊入宮中也·蓋昔傳如此·理或然矣梁大清中·候景攻台城·內外斷絕·羊侃教小兒·作紙鳶·藏詔於中間·大帝出太極殿前因北風於之·翼得達援軍·賊謂是厭勝·又射下之·見馬摠通曆云·然其初一見於此·証知其審爲韓信造矣.

고 또 蕭梁時代에 候景에서 梁의 台城을 攻擊하여 城의 交通이 두절되자 洋侃가 아이들에게 紙鳶을 띄우게 하고 詔書를 실어서 援軍을 불러들였다.

「詢夢錄」에는 五代時代에 漢나라 李鄴이 宮中에서 紙鳶을 만들어 끈을 달아 바람에 날렸다고 한다. 李鄴은 紙鳶의 頭部에 竹製 피리를 달아 바람이 그 피리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냄으로 이것을 風箏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韓非子」에는 墨子가 木鳶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고 「鴻書」에는 公輸般이 木鳶을 만들어 宋나라 城을 엿보았다는 말도 있다

唐나라 安錄山이가 겹겹이 싸여 있는 城内部의 楊貴妃와 연락을 취하기 爲하여 鳶을 만들어 띄웠다는 說도 있고, 唐의 李石이 撰한 「博物誌」에는 「今紙鳶牽絲而上命小兒便張口望視，以洩內熱也」란 것을 보면 唐代에 와서는 鳶날리기가 더욱 盛行하였던 듯하다.

B 日本 紙鳶에 對한 記錄

日本 平安朝時代에 倭名類⁶⁾聚抄, 雜藝部에는 「紙老鴿, 辨色立成云, 紙考鴿, 世間之師勞之, 以紙爲形乘風能飛, 一云紙鳶」이라고 記錄되어 있음을 보아 紙鳶이 平安朝 時代에는 이미 存在하였음을 알겠고, 一一六八年 以後에 된 것이라고 傳하는 “伊呂波字類抄”나 類聚名義抄에 나타난 名稱으로 미루어 보면 그 當時 日本의 紙鳶은 梟形을 한 것이었고 또 “시로시”라고 音讀되었음을 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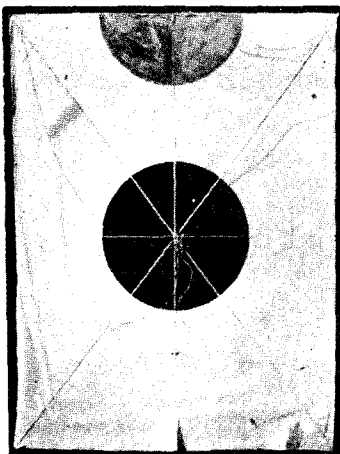
日本 民間에는 紙鳶을 戰爭 때에 利用하고 또 建築하는데 있어 紙鳶을 利用하여 벽돌을 쉽게 올렸다는 俗說도 있다. 또 「倭名抄」에 紙鳶을 「紙老鴿」라 적은 記錄이 나와 있고(1950年) 國戶時代에 地方別로 風合戰이 成行했다고 한다.

C 其他 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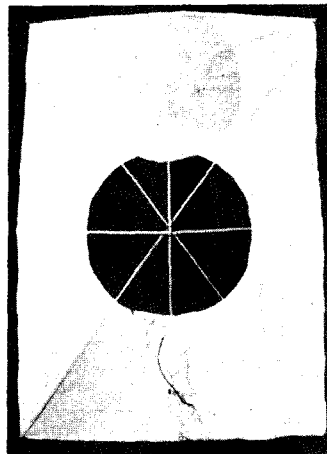
美國의 Bengamin Franklin (1752年)傳에 보면 비오는 날 가죽으로 鳶을 만들어 鳶에 쇠붙이를 달고 띄워 컵에 물을 담고 電氣 實驗을 하였다는 記錄이 있고⁷⁾ Indian Kite 는 검은 새 形能 모양으로

* 6) 日本最初の 分類字典 源順著 931年 以後의 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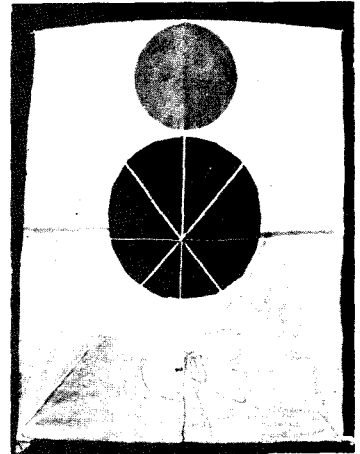
7) Benzamin Franklin (1752年版)傳



〈靑반달연, 90×65〉



〈금쪽지연, 60×45〉



〈紅치마연, 72×57〉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유럽 地方도 鳥類形(動物形) 모양으로 만들고 채색을 하여 鳶을 날렸다. 勿論 規格은 그때 그때 適當히 製作하고 綌(布)이나 질긴 종이(紙類) 가죽 등을 사용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鳶의 起源이 他國으로부터 傳來된 것이 아니고 自己國家에서 民間娛樂의 一種 類로 發生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비슷 비슷하므로 단정하기가 곤란한 問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鳶이 어느 한 民族의 考案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亾古 代社會에서 온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이다. 各國의 風俗文獻을 보면 共通性을 볼 수 있다.

三韓 때 濊國의 儂天이나⁸⁾ 扶餘의 迎鼓나⁹⁾ 高句麗의 東盟¹⁰⁾ 같은 名節에 온 나라 百姓이 神壇앞에 모여서 天神께 祭祀를 지내고 그 儀式이 끝난 뒤에는 그 神壇 앞 廣場 같은 데에서 온갖 技藝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 中에서 이 紙鳶이 한 技藝로서 宮中에서 날렸을 것 같고, 또 그 뒤에는 競技도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니 이런 推理가 過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韓國紙鳶의 起原은 三韓 時代 祭天儀式끝에 各種技藝大會에서부터 始作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아도 타당하리라고 본다.

二. 鳶날리기 風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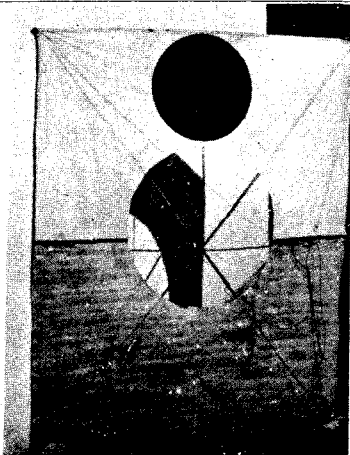
鳶날리기는 겨울철에 靑少年들이 즐기는 유희로서 屋外 넓은 들이나 개천가 같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鳶을 띄워 가지가지 기교로서 競爭을 하는 놀이다.

全國各地에서 12月 中旬이 되면 鳶을 날리기 始作하여 陰歷 正初부터 대보름까지 絶頂을 이룬다. 시골에서는 대개 큰길가나 개천가 野山, 보리밭 海岸가 等地에서 鳶날리기를 하고 舊韓末 서울에서는 淸溪川邊에서 鳶을 많이 날렸다. 正月 보름 하루 이틀 전에 年中行事처럼 벌어지는 鳶싸움을 보기 爲하여 서울의 水標橋 近方 淸溪川을 따라 아래 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면 鳶날리는 아이들은 남의 鳶줄을 끊느라고 한자리에 버티고 서있기도 하고 혹은 패하는 鳶을 쫓아가느라 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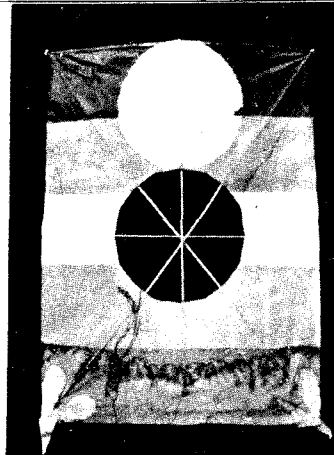
* 8) 濊國用十月節祭天晝夜飲酒歌舞名之爲儂天(魏書·東夷傳)

9) 扶餘以殷正月發天國中大會 連日飲酒歌舞名曰迎鼓(魏書·東夷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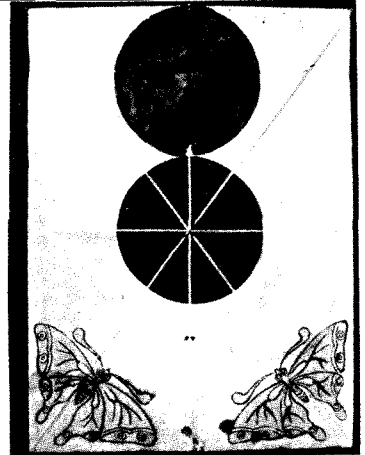
10) 高句麗其民喜歌舞國中邑卷暮夜男女郡聚相就歌戲 - 以十月祭天國中大會名曰東盟 (魏書 東夷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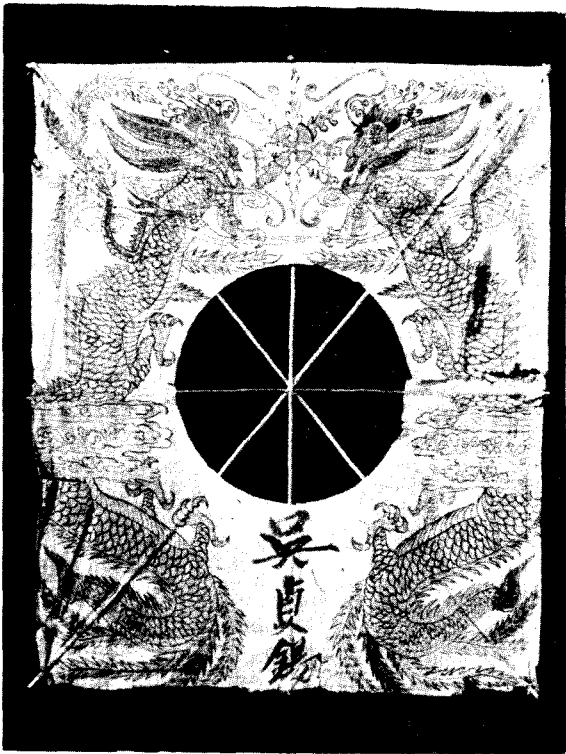
〈靑치마鳶, 60cm×45cm〉



〈五色同치마연, 68cm×53cm〉



〈쌍나비연, 59×39〉



《鳳凰鳶, 88×72》

中만 보고 가다 물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담을 뛰어넘고 지붕 위를 넘어 가기도 하나 그 형세를 막을 수 없었고 구경꾼은 그런 광경에 興味와 전율을 느끼며 주시하였다 하니¹¹⁾ 鳶날 리기의 人氣는 알 만하다.

서울 長安의 年少者로서 鳶싸움을 잘 하여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세도가나 富有層의 집에 불려가서 鳶날리는 것을 구경시켰다.

鳶은 주로 少年들이 띄우나 壯年들도 띄운다. 바람을 타고 地上에서 하늘로 鳶을 뜨게 한 다음 鳶絲을 늦춰 가며 하늘높이 치솟게 하고는 上下左右로 鳶體를 움직여 각각의 曲藝를 부리기도 하고 남의 鳶줄과 交接하게 하여 남의 鳶줄을 끊어 鳶을 날려 보내고는 快哉를 부르는 끊어먹기 경기가 불 만하다. 이 鳶싸움을 위해 少年들은 鳶絲에다 사기가 루나 유리가루를 아교에 버무려 바르는데 이 기술은 鳶띄우는 기교와 함께 鳶싸움의 勝負를 左右한다.

이밖에 재미있는 놀이로는 書信보내기가 있다 이 놀이는 湖南地方에서 흔히 하던 놀이인데, 종이에 글귀를 적고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鳶얼레의 鳶絲에 꿰다음 얼레를 앞으로, 上下로 당기면 鳶은 하늘높이 올라가고 편지는 바람에 밀려 鳶목실까지 올라간다.¹²⁾

또 (액막이)이라 하여 正月 보름날 紙鳶에다 自己의 生年月日時 및 厄을 면해달라는 文句¹³⁾(家口某生身厄消滅) (東國歲時記), 또는 (送厄) (送厄迎福)이라 해서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鳶絲을 끊어 날려 보냄으로서 그해의 運을 면한다는 風俗이 있었다.

또한 方法으로 正月 보름날 저녁 出生時에 달집을 태울 때에 달집문에 들어맞을 만한 큰 문짝연을 만들어 태우는 것이다. 그 鳶은 문짝鳶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띄우기 위한 연이 아니라 태우기 위한 것이기에 매우 크다. 태울 때는 鳶에다가 「本洞所願成就」 따위의 글을 쓰기도 한다. 달이, 뜨자 문짝연과 함께 於火하고는 “오호방화야 옹호살바” 하고 외친다고 한다.¹⁴⁾

* 11) 東國歲時期

12) 鳶을 띄우는 사람의 소원을 적음 (湖南地方)

13) (家口某生身厄) 東國歲時期

14) 韓國民俗綜合 報告書 (慶南篇 p. 813)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 送鳶이라고 한다. 鳶날리기는 이처럼 新正과 새 希望과 더불어 庶民의 生活에 깊숙히 파고들어 鳶을 主題로 읊은 詩歌도 적지 않다. 그 中 몇 가지만 例擧해 보면,

서울선부 연을 띄워
고룡산에 걸었다네
아홉방의 세너들아
연줄거는 구경가세

〈麗州地方의 鳶노래〉

- 紙鳶歌 -

我家諸厄爾帶席廣 不落人家掛野樹
只應春天風雨時 自然消無尋處
權 鐸 (石州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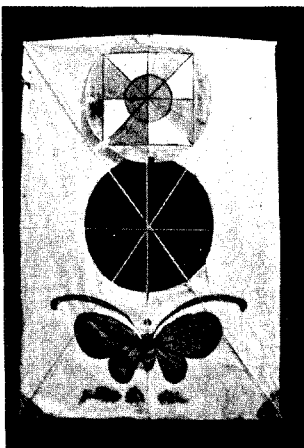
- 看紙歌 -

舊俗微兒戲 元朝競技鳶 天高無制礙
風方有寅錄 乍作回回白 翻愁淩淩玄
傍看知戒懼 極處好周旋
丁範祖 (海左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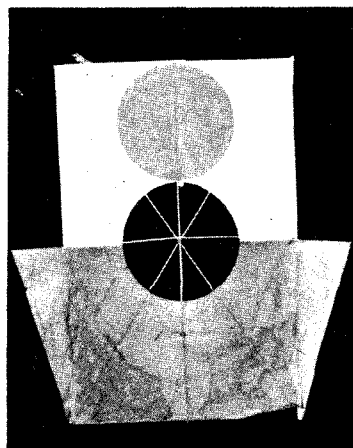
이와 같이 民間娛樂으로 特히 庶民層에서 活發히 움직였던 것이다.

三. 紙鳶의 種類 (多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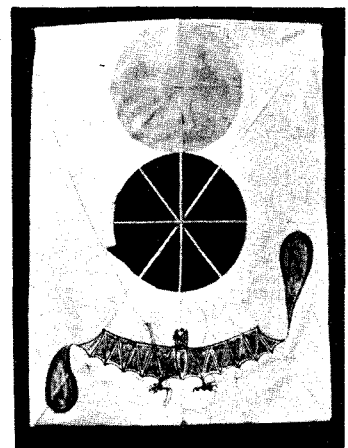
鳶의 種類는 그 形能에 따라 分類되므로 가지數가 꽤 많다. 따라서 그 名稱도 다양하다. 그것은 하나하나 考証할 길이 없다. 〈東國歲時記〉에 其班, 墨額, 錚盤, 方草, 猫眼, 鵲翎, 魚鱗, 龍尾 등의 名稱이 記錄되어 있으나 現在, 五角形, 六角形이 있고 名稱도 蛸鳶 (列一연) 鳥賊鳶, 扇鳶, 軍配鳶, 奴鳶, 鳥鳶, 飛行機鳶 등 多種 多樣하고 中國, 말레이시아, 타이 같은 나라의 鳶의 形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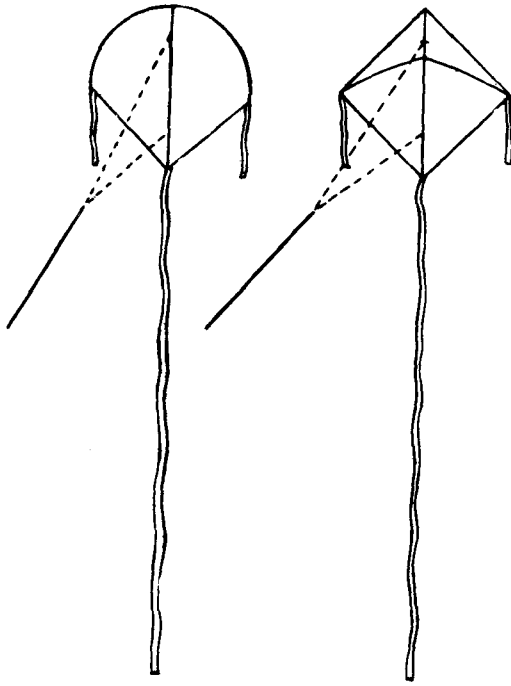
〈나비연, 57×39〉



〈관연, 60×59〉



〈박쥐연, 48×36〉



〈가오리연, 30cm×235cm〉

보면 人像類形, 鳥類形, 魚類形, 文字形, 物體形 等인데 비해 우리 나라의 鳶이 發達을 보지 못하였다.

現在 남아 있는 紙鳶을 보면 外形은 보잘 것이 없으나 構造面에서 他國의 鳶은 앞서고 技能的으로 훨씬 우세하다 하겠다.

鳶의 種類와 名稱을 民間에 傳해 내려오는 貫習에 依하여 보면 대체로 外形 종이빛깔 紙面에 그려진 圖案에 따라 區分되고 있다. 例을 들면 물고기와 가오리鳶을 문어 또는 울챙이鳶이라 부르는데(各地方에 따라 명명함), 湖南地方에서는 各地方의 風俗에 따라 名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거의 비슷하다.

여기 鳶의 種類 形能別로 分類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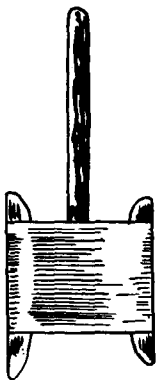
7. 動物鳶

動物 모양을 닮은 것. 가오리 鳶, 문어 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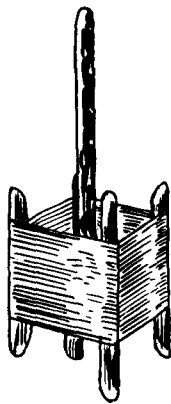
ㄴ. 꼭지 鳶

鳶의 頭部에 圓形으로 色종이를 오려붙인 종이의 빛깔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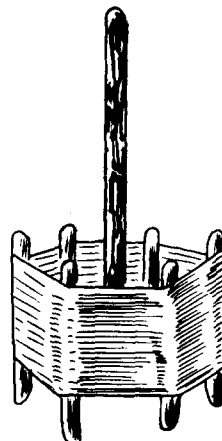
靑꼭지 鳶, 紅꼭지 鳶, 먹꼭지 鳶, 벌꼭지 鳶, 金꼭지 鳶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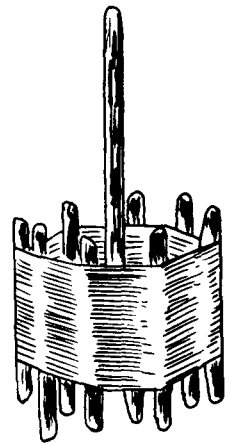
〈경얼레〉



〈비모얼레〉



〈육모얼레〉



〈관모얼레〉

ㄷ. 반달鳶

鳶의 頭部 中央에 반달 모양이나 활(弓) 모양으로 색종이를 오려붙인 것인데 그 빛깔에 따라 名稱이 정해진다.

靑반달鳶, 紅반달鳶, 먹반달鳶, 쪽반달鳶, 활(弓)반달鳶.

ㄹ. 치마鳶

鳶面의 一部 또는 全面에 色칠을 하여 마치 女子의 치마 저고리처럼 上部下部의 色이 다르다 는 데서 나온 名稱이며 역시 그 빛깔에 따라 名稱이 정해진다.

靑치마鳶, 紅치마鳶, 먹치마鳶, 색동치마鳶, 五色치마鳶.

ㅁ. 立鳶

鳶의 全面에 빛깔을 마구 칠한 것인데 역시 빛깔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먹立鳶, 靑立鳶, 紅立鳶, 보라立鳶.

ㅂ. 박이鳶(점박이鳶)

鳶面에 군데군데 동그란 點을 박은 것이다.

돈점박이鳶, 눈깔점박이鳶, 귀점박이鳶.

ㅅ. 동이鳶

鳶面의 上部나 中間에 떠를 두른 것이다. 머리동이鳶, 靑머리동이鳶, 허리동이鳶, 半머리동이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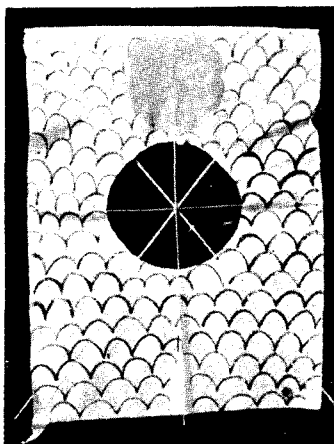
ㅇ. 나비鳶

鳶面에 나비를 그려넣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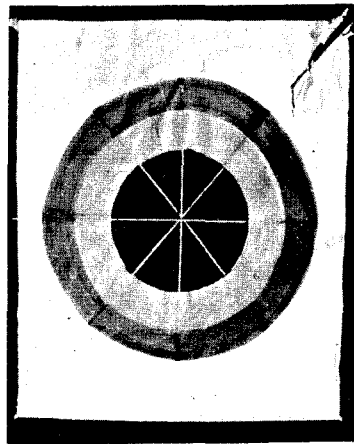
쌍나비鳶, 단나비鳶, 꽃나비鳶, 호랑나비鳶.

이밖에 鳶의 모양과 圖案이 독특한 것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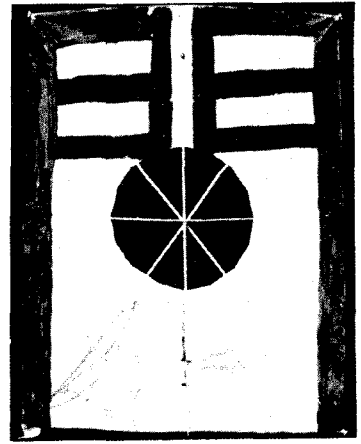
鳳凰鳶, 박쥐鳶, 비늘鳶, 바둑판鳶, 冠鳶, 文字鳶, 접시鳶, 거북선鳶, 중머리鳶, 상주鳶, 쟁반鳶, 방패鳶, 厄막이鳶, 제비鳶, 龍鳶 등이 있다.



〈비늘연, 32×36〉



〈접시연, 35×26〉



〈文字연, 65×50〉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鳶은 原始的이라 할 만큼 소박하고 단순하여 사치와 기교가 거의 없다. 봉황연처럼 치밀한 構圖에 정교한 묘사로 정성을 들인 훌륭한 民畫的인 것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우직하고 소박한 民層의 性各이 드러나 있다. 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觀賞用으로 만들거나 한 것처럼 動物의 形能을 빈틈없이 도안화하여 갖은 기교로서 美麗한 外觀에 忠實을 기한 中國이나 日本의 것과 對照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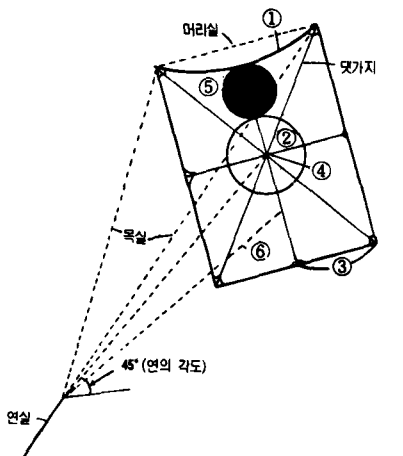
추측컨데 이미 인멸된 鳶 가운데는 봉황연 못지 않은 훌륭한 作品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

四. 鳶의 科學的 構造와 絲, 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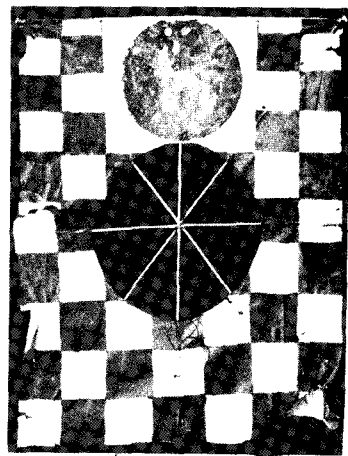
鳶은 바람을 타는 器具라 바람이 강한 海岸地方과 비교적 바람이 弱한 內陸地方에 따라 製作하는 方法이 다르고 또 띄우는 사람이 少年인가 壯年인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製作된다.

鳶의 製作材料는 枯黃竹, 白簡竹 등의 대나무와 窓戶紙, 白紙, 三疊紙, 壯紙, 탁지(탁나무 껍데기로 만든 韓紙)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鳶絲와 그것을 감는 얼레가 따른다.

鳶을 만들자면 우선 뼈대가 될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손질한 다음 만들고자 하는 鳶모양으로 종이를 오려 대나무를 붙일 자리를 접어서 表示해 놓는데, 上部는 한가운데를一寸 가량 안으로 접어서 표하고 또 鳶의 中央을 둥글게 오려내어 바람구멍을 내어놓는다. ② 그리고나서 몇가지에 풀질을 해서 鳶종이의 四方 돌레에 바르며 上部는一寸 가량 접은 종이를 싸바르고 ① 鳶의 中心에서 交叉되도록 가로 세로 對角線으로 몇가지를 종이에 붙인다 ④ 四方돌레와 中央 뼈 몇 가지가 만나는 곳을 안쪽에다 適當히 오린 종이를 발라 고정시킨다. ③ 꼭지 鳶의 경우 鳶꼭지는 中央部에서 바람구멍으로 둥글게 오려 낸 종이에 색칠을 하여 上部에 붙인다. ⑤ 趣味에 따라 鳳凰이나 龍, 나비 등의 그림을 鳶體에 그린다. 鳶의 上部를 든든히하기 위해 上部에만 가로로 종이를 한겹 더 바르기도 한다. 이 上部는一寸 가량 종이를 들여다 발랐기 때문에 몇가지가 약간 둥글게 휘어 있는데, 양끝 모서리를 머리실로 팽팽하게 연결하면 弓모양이 된다. ① 이것을 鳶의 上昇에 큰 作用을



<鳶의 構造>



<바둑판연, 50×39>

한다. 그리고 上部양끝, 中央의 交叉點 中央直線 下部中間 ⑥ 에 各各 목실을 묶는 다음 適當한 길이에서 이 네 가닥의 목실을 함께 鳶실에 연결한다. 이때 鳶體에 맨 목실이 集決된 點에서 鳶體와 45度 角度가 되도록 각 목실의 길이를 調整해서 비스듬히 鳶실에 매야 한다. 그래야만 鳶실 조종에 따라 自由自在로 機動性을 지니게 된다.

鳶을 높이 날리는 데는 鳶體의 構造와 목실의 角度 여하가 決定的인 역할을 한다. 때로는 그날의 日氣와도 關係가 있는데 鳶이 한편으로 기울며 날 때는 기우는 反對쪽의 頭部에 종이 오락지를 달아 均衡을 취하기도 하고, 鳶體의 平衡을 잡기 爲해, 또는 하늘로 치솟는 鳶의 운치를 살리기 위해 긴꼬리종이를 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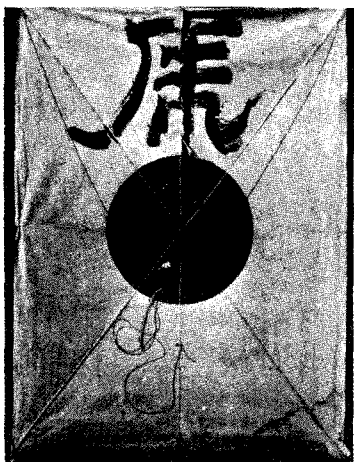
우리 나라 紙鳶은 大小를 막론하고 長方形으로 되어 있어 外形上으로는 無美건조하여 아기자기하지 못하나 構造面에서는 科學的으로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長方形의 鳶은 바람을 잘 받아 잘 뜨게 되어 있고, 中央의 바람구멍은 前面에서 오는 바람의 壓力을 감소시켜 鳶體의 파손방지와 鳶실 끌어당기기 調節을 쉽게 해주고 頭部의 丸형은 大氣의 氣流를 끊으며 上昇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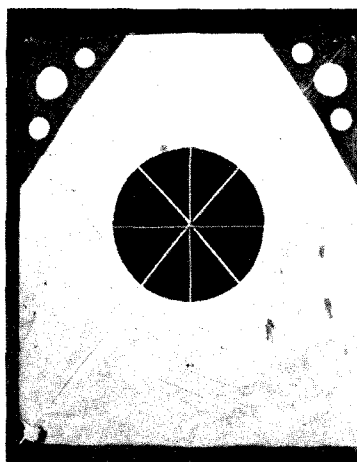
이러한 鳶이 갖춘 기능과 바람의 方向風速等を 보아 가며 鳶실을 調整하여 하늘로 鳶은 치솟게 하는 鳶날리기는 참으로 통쾌하고 즐거운 놀이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과연, 必然的인 關係에 있는 鳶실과 얼레는 鳶놀이의 生命과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만든 鳶이라도 鳶실이 弱하거나 얼레가 시원치 않으면 잘 날 수 없기 때문이다. 鳶실은 常白絲(韓國產 명주실), 唐白絲(中國產 명주실), 무명실, 양실 등으로 만든다. 鳶놀이의 하나인 鳶싸움에서 이기고 또 鳶을 높이 날게 하자면 鳶絲가 질겨야 한다. 그래서 鳶실에 풀을 먹이거나 부레풀(아교)을 먹인다. 부레풀은 아교를 녹인물에 곱게 빻은 사기 가루나 유리가루를 넣어 섞어서 鳶실에 가미를 먹이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가미 또는 유리 가미라고 한다. 이 가미를 하면 鳶실에 서슬이 생겨 鳶싸움때 相對方의 鳶실을 빨리 끊어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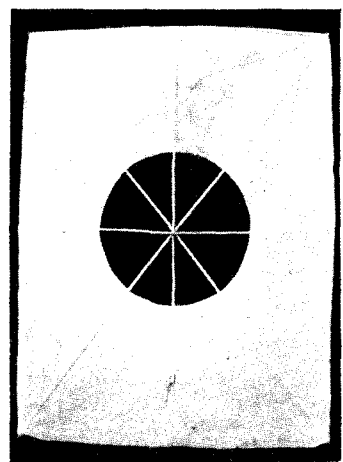
鳶실을 풀었다 감았다 하는 얼레(자세감개, 연실꾸리기라고도 함)의 생김새는 京鄉各地方에 따



〈文字연, 80×60〉



〈눈깔박이연, 50×38〉



〈紅꼭지鳶, 50×38〉

라 조금씩 다르지만 原理는 같다. 柏子木, 松木, 榴木, 雜木 等の 나무로 네기둥을 맞추고 가운데에 자루를 박아 네 기둥에 薦실을 감았다 풀었다 한다.

얼레 種類는 평얼레, 네모얼레, 육모얼레, 팔모얼레가 있으나 보통 네모 얼레를 많이 쓴다. 경기용으로는 평얼레나 네모얼레는 감긴 薦실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六모나 八모 얼레를 많이 쓴다.

六. 結論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各國의 紙薦은 形態가 나라마다 다르고 薦의 材料가 종이이므로 永久히 保存된 遺物이 없고 文獻만 가지고 考察하기는 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文獻으로 現存되어 오는 薦과 비교할 때 共通된점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保存되기 어려운 風俗을 傳해야 되겠고, 또 遺物들을 소중히 保管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紙薦의 起源은 아득한 三韓時代부터 始作하여 本格的으로 사용(놀이)한 것은 文獻上에 나타난 三國史記 卷 41列傳 第一 金庚信 上條에 記錄된 것과같이 新羅眞德女王 元年으로 봄이 妥當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鄭麟趾 等 三十三人 高麗史 卷三十三
- 柳晩泰 詩集 歲時風謠
- 金正喜 文集 院堂先生全集 卷十
- 喜岡川守貞者 遊戯類 近世風俗誌下卷 木夏本書房 p.313
- 金富軾 著 三國史記 卷 四十一 列傳第一
- 永尾龍造 支那民俗法 支那民俗刊行會 p.741
- 高承選 事物記原
- 洪錫謨 著 東國歲時記
- 崔常壽 編著 韓國紙薦 韓國民俗刊行會 1958年刊
- 文公部 文化財 管理局編 韓國의 風俗 上 文公部 文化財管理局刊
- 文公部 文化財 管理局編 韓國民俗綜合報告書(慶南編) 文公部文化財管理局刊
- 秘 書 東夷傳
- Britannica p. 421
- Benzamin Freanklin 1952年版
- 李潭周 紙薦 新東亞 1973年 3月号 p.288
- 李潭周 紙薦 보이스카우트 第十四卷一號 p.6
- 李潭周 追憶속의 薦놀이 韓國日報 72.2.16
- 李潭周 薦 東亞日報 72.5.2
- Pacitic FRIEND. Battle of Giants. Photo. of Japan VOL.2.No.5.